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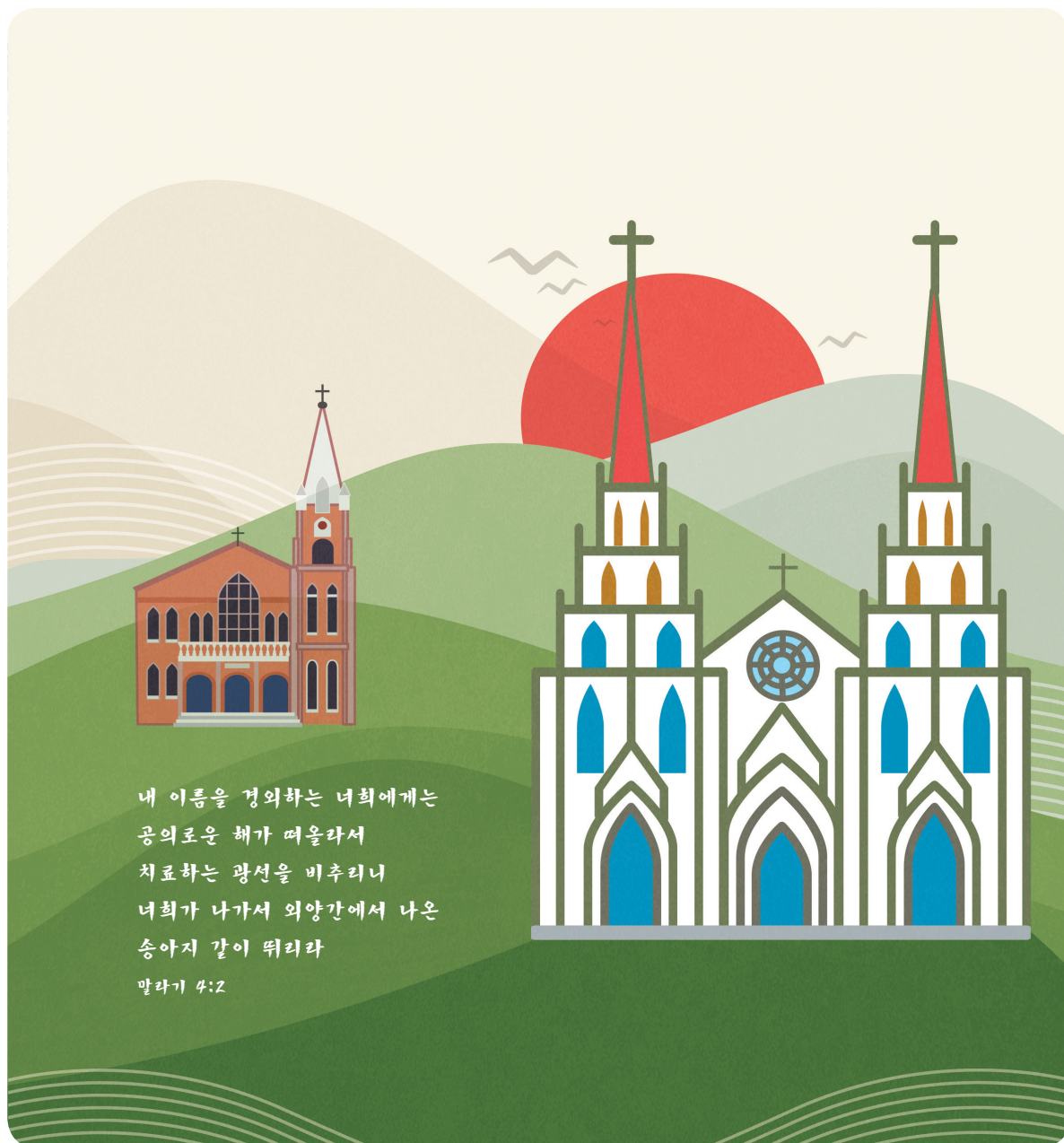
| 2024년 표어 |

주여, *God Care, We Care!*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창조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게 하소서!

물레동상

The Well-Watered Garden
Vol.104 | 2023. 1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2

부러짐에 대하여



정호승 시인

나뭇가지가 바람에 푹푹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 데 쓸 수 있겠는가



발행인 박창운
지도목사 황천호
부장 양홍철
부부장 박문호
총무 이상원
회계 양선미
편집장 양홍철

편집위원 김미진, 박지혜, 김승훈, 김원진,
박현아, 안주현, 이영숙,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허군열
스튜디오 우제오, 박효윤
편집집 안지현
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화 (053) 253-2615 ~ 7
팩스 (053) 253-2618
주소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발행일 2023. 12. 31.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메일 fch_pub@naver.com

물대동상

통권 제 104호
The Well-Watered Garden

소통의 장	여는 글	04	새해, 우리가 꾸어야 할 꿈! 박창운 위임목사
	목양부	07	미모순 곽경주 집사
	새가족부	09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10	새가족 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김정애 성도
		12	새가족 글 반가운 교제가 있는 곳 장인수 성도
	교회학교	14	2022년 교회학교 백서를 발간하며 강이철 장로
	항존직	16	피택자 임직교육의 소회와 다짐 주기성 장로
		19	권사, 그 영광스러운 직분 박병애 권사
	추수감사절	21	감사사(感謝辭) 이승환 장로
	선교	23	선교, 왜 이때여야 하는가? 양인모 목사
	남선교회	25	남선교회 연합 가을 야외예배 동행기 이주하 협동장로
	소식	27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창립 130주년 기념 연재		40	교파 분열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 권오현 은퇴장로
	소개	42	새로운 교역자 소개 박평화 전도사
	퍼스트스텝	44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조혁상 안수집사
	청년부 사역	48	쪽방 나눔 인터뷰 박지혜, 김원진 홍보출판부 기자
삶과 신앙	우리 결의 이단	51	2023년, 온·오프라인으로 여전히 진화하는 포교전략과 대응 방안[4] 탁지원 소장
	신앙강좌	56	이단을 이기는 기독교 교리[4] 종말론 장규현 목사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59	439 십자가로 가까이 양홍철 장로
	5분독서코너	60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논단	62	이 가을에,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 김홍석 은퇴집사
		64	이스라엘의 역사(歷史) 김태호 은퇴안수집사
		6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실상과 신앙적 이해 신성윤 선교사
		69	교통사고를 줄이는 7가지 예방 수칙 빈태유 은퇴안수집사
크리스천 문화	건강칼럼	70	정신장애 및 이상심리 [2] 양선미 집사



대구제일교회
박 창 운 위임목사

새해, 우리가 꾸어야 할 꿈!

I. 비전의 성경 읽어보기

에스겔 47장

-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 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 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 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 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
- 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
-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II. 세상의 절망

세상엔 절망에 처한 이들의 이야기가 많다. 한 청년이 있었다. 피곤한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고는 소파에 편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아프리카 어느 채석장에서 일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다큐 형식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청년이 깜짝 놀란 건 아이의 하루 품삯이 600원이라는 사실이었다. 아픈 부모님과 동생들과 그 돈으로 한 끼를 먹으면 사라지는 임금. 청년은 다큐를 보면서

과격할 정도로 생각에 잠긴다. "나는 쇼핑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혹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아는 집사님이 있었다. 아니 권사님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이다. 예전에 서울 시청 부근의 지하상가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점심을 시켜 먹고 상을 복도 한편에 내어놓으면 주인이 회수해 가는 곳이었다. 한 번은 상을 물려 놓았는데, 그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숙자가 남겨 놓은 밥을 먹고 가더라는 것이다. 그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내일부터는 미리 밥을 반 덜어 놓아야겠어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세상엔 절망에 처한 이들이 많다. 오늘 보려 하는 에스겔의 배경도 실은 위의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라를 잃고, 힘겨움에 처절한 아픔을 곱씹고 있었다.

III. 하나님에게서 오는 비전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새로움을 일으키겠노라고 말이다. 새로운 목자, 새로운 영,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올해의 주제와 관련된 47장의 내용이다. 하나님은 절망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이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게 하신다.

-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되살아나리라(8절)는 것은 치료하겠다는 것이다(healing). 모든 생물이 살아나리라(9절)는 말씀은 살아남(life giving)을 말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12절)은 그 생명력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life sustaining)을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절망에 지쳐 힘을 잃고 주저앉은 이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다.

얼마나 멋진가! 정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멋진 꿈과 희망을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서 주제어로 삼았고, 우리 교회도 동일한 마음을 아로새기려 한다. "주님, 올해에 이러한 위대한 일을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IV. 사람들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이쯤 되면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고 말이다. 사실, 에스겔의 위대한 비전 메시지를 들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에스겔서 1장만 펼쳐 보더라도 그곳에는 아주 깊은 절망만이 가득하다. 포로로 잡혀 온

땅, 홍수와 질병이 지나간 폐허 같은 장소에 움막을 짓고 살아가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날에 에스겔이 강가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탄식하던 순간부터 에스겔서는 시작하기 때문이다(참고, 겔 1:1-3).

이러한 생각에 잠힐 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7절)"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는 물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건네시는 질문이다. 메마른 땅에 가득 차오르는 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원래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가득 채우시고는, 에스겔에게 묻는 것이다. "이 온 세상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말이다. 하나님 백성과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스며들고, 때로는 파고 들어가서는 그 땅을,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생명을 계속 끊이지 않게 주시겠노라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의 사건을 믿느냐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내가 이 꿈을 꿀 수 있겠니?"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 즉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망을 이길 수 없다. 이 상황을 바꾸고, 방향을 틀만한 힘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망의 한계치에 다다랐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은 보좌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곳에서 흘러나와야 세상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치유와 살아남과 영원히 지속되는 열매에 대한 비전과 관련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실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은 요한복음에도 나온다. 초막절에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자 하신다. "내가 할 일을 들었느냐? 그것을 너희도 함께 꿈꿀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올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보자. "우리도 그 꿈에 우리의 삶을 묶어 두렵니다. 은혜 속에 머물겠나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것이다. **살렘!** 불렘동상

우리순 이야기 **미 모 순**



곽경주 집사(순장)

1. 곽경주

미모순은 순장으로서 4번째 만나는 순이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순모임이 와해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이어온 것 같다. 순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사실 순원들보다 잘하거나 신앙이 더 좋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순장으로서 순원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도 받고 도전도 얻는다. 미모순은 대부분 영아부 엄마들이거나 영아부 교사들이다. 영아부 교사로서 엄마들을 만나다 보니 순모임으로 잘 이끌게 되는 것 같다. 순모임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만남과는 다른 것을 매번 느낀다. 우리 안에는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 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고 기도해 주는 모임이다. 그래서 나는 순모임이 참 좋다. 순장으로서 모임을 인도하고 순원을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감보다는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이 더 큰 것 같다. 2023년에 우리의 만남과 모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 2024년에도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모임이 되길 소망한다.

2. 김진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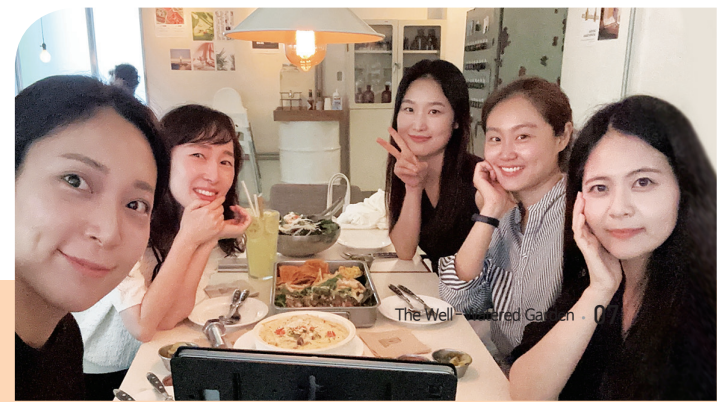
모태신앙으로 자라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이 익숙했습니다. 교회에는 어릴 때부터 봐 온 어른들과 친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결혼하

고 고향을 떠나 대구에 정착하면서 낯선 교회에 새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은 같았지만, 익숙한 교회 식구들이 없으니 나눔과 교제가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모순을 만났습니다. 목상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며, 삶의 고민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교제로 행복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3. 배예경

처음 순모임을 시작할 때 순모임이라고 듣지 못하고 엄마들끼리 가끔 만나자고 해서 친목 모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 첫 모임 가서 알고 보니 순모임이었는데 더 좋았다.

그동안은 육아와 일로 바쁘고 피곤함 때문에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삶이 익숙해져 신앙모임의 소중함과 열정을 잃고 있다가 말씀 교제를 할 수 있는 모임을 한다고 하니 설레고 감사했다. 여러 가지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또래 엄마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청년부 때의 생각도 많이 났다. 특히나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청년부 때 느꼈던 믿음의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인 것 같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미모순과 함께하심을 뜨겁게 느끼며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길♡.

4. 배유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영적으로 갈급할 때 영아부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었는데 영아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순모임이 갈급함을 가진 모두에게 필요한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육아만을 나누는 것이 아닌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든 문제들을 세상에 기대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곳에서 치유 받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기도 하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목사님을 통한 깊이 있는 교육을 함께 받으며 더 풍성해지는 나눔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순모임이 생겨나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5. 이한나

결혼을 하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에 오게 되었고, 어느 교회에 정착해야 할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연애 시절 데이트 장소로 와보았던 대구제일교회는 '외관이 예쁘니

대구에 살게 된다면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생각했고 현실이 되었다.

아이를 낳고 처음 가게 된 영아부, 영아부에서 만난 언니, 동생, 친구들과의 순모임은 단순한 교제가 아닌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구제일교회로 부르셨고 미모순을 통해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순원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미모순 모든 순원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

6. 이정은

미 : 미모순에 얼떨결에 들어와서,

모 : 모임을 가지는,

순 :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듣고 나누며 공동체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순모임 명이 '미모순'이라는 말을 듣고 미모가 아름다운 엄마들의 순모임인 줄 알고 내심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모순 순장님과 미모순 순원들 첫 만남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름다운 엄마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과 가정, 육아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순장님과 순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계속 아름다운 엄마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뻗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출생동상

New family welcome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명숙 _ 2교구 3구역



장인수 류하은 _ 2교구 16구역



김은주 _ 1교구 2구역



박재우 _ 4교구 11구역



구주환 _ 1교구 2구역



김미자 _ 2교구 9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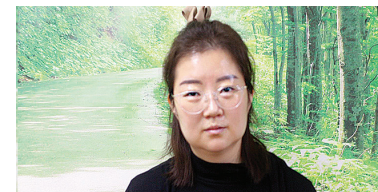
이소연 _ 1교구 14구역



이재찬 김정애 _ 1교구 24구역



김혜림 _ 1교구 24구역



은서연 _ 2교구 7구역



양은지 _ 2교구 9구역



정이향 _ 3교구 17구역



김갑덕 손정애 _ 2교구 27구역



신현진 _ 2교구 38구역



진은진 _ 2교구 37구역



이윤주 _ 4교구 1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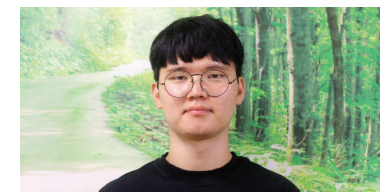
최남희 _ 4교구 23구역



최영옥 _ 1교구 1구역



이재현 _ 4교구 24구역



이재훈 _ 4교구 24구역



김다운 _ 1교구 30구역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김정애 (이재찬, 이봄) 성도

차가운 바람에 깜짝 놀라 아이의 옷을 여미며 바삐 교회로 걸어가다가 아직은 어색한 인사를 사람들과 나눕니다. 올해 2월, 처음으로 가족이 손을 잡고 영아부 예배를 찾았던 겨울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아주 긴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삶의 열정과 생기,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슴 뛰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 상황과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며 멈춰버렸던 듯합니다. 무엇보다 임신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출산 이후엔 갓난아기를 키우느라 나의 상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영아부가 있는 대구의 교회를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기쁘게도 20대 청년 시절부터 말씀을 찾아 들곤 했던 박창운 목사님이 계시는 대구제일교회에 영아부가 있어 아이를 먼저 등록시켰습니다.

한동안은 아이가 영아부에서 적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위안이 되고 만족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삶으로 배워가는 아이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저와 남편의 차례임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정든 기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오랫동안 망설여지는 일이었지만 결국 결단하는 마음으로 9월의 첫 주일, 함께 새가족부에 등록하였습니다.

6주간의 새 가족 교육은 많은 섬김과 도움의 손길 속에서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근간이 되는 바탕을 다시 한번 다져 나가며 교회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스텝을

권유받게 되고 짧은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긴 시간 참여할 수 있을지, 늦은 시간까지 아이가 힘들진 않을지 걱정하면서도 일단 가보자는 마음의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퍼스트스텝은 멈춰 있던 삶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목사님들의 좋은 강의와 도전을 받는 시간은 매주 기대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저도 몰랐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섬기는 분들의 환대를 통해 교회됨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퍼스트스텝이 끝나고 아쉬운 마음에 바이블 아카데미도 이어서 신청하며 정말 오랜만에 긴 강의를 통해 굳어진 머리를 깨웠습니다. 말씀의 힘은 무미건조했던 영혼이 흔들리는 경험이었고 삶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두고 길었던 망설임을 끝냈던 선택이 우리 가족에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매일은 지금도 평범하고 똑같지만, 새가족으로 등록한 이후 분명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환대와 사랑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불령동상

반가운 교제가 있는 곳



장인수 (류하은, 장하울) 성도

황천호 목사님은 저희 부부의 첫 만남부터 10년이 넘도록 저희 신앙의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주신 목사님입니다. 황천호 목사님과 우연한 대화 중 대구제일교회 박창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창운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이 '영성 시리즈' 중 '이것이 영성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너무 감동됨과 동시에 가족과 성도와의 일화 등에서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파스함에 감동되었고 목사님의 다른 말씀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교회에 나가 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유튜브로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영상에서 본 박창운 목사님을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만 봤던 목사님을 실제로 보게 되자 저도 모르게 반

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영상에서 보았던 이상으로 목사님께서는 따뜻하게 저에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황천호 목사님도 목사님 뒤에서 쑥 하고 나타나셔서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이 반가움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갑자기 대구제일교회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흑하고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코로나를 핑계로 주일은 온라인 예배만으로 충분하다 하며 합리화하고 있던 중에 이 '반가움'이 저에게 '교제'에 대한 사모함을 알게 해줬습니다.

이 '반가움'은 대구제일교회에 처음 출석한 그날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기가 누군지 모르실 텐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도님이 저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 환대에 감동하여 새 신자 교육도 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새 신자 교육에서는 바나바 이영숙 권사님을 비롯한 새가족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이 진심 어린 얼굴로 우리 가족을 환대해 주셨고

그 환대에 저희 부부는 매주 일요일을 기대감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새 신자 교육에서도 동일한 맥락인 2주 차 교육 "교회의 본질 : 사귄(fellowship)으로서의 교회"가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일 1:3-4)

영아부에서도 이 환대와 사귄은 계속되었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이 예배와 찬양,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귄이 은혜가 되었는지 집에서도 찬양만 틀면 자리에서 일어나 춤추는 귀엽고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대구제일교회에 다니는 지금이 다시 찾아온 신앙의 황금기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교회 중고등부에서 고3을 앞두고 만났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었고 아내를 첫사랑으로 만나 교회 안의 많은 어른들이 학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을 포함, 단 하나의 근심 걱정 없이 성경 속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로운 고3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군대 직장을 지나며, 예수님

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예배당에 나가지만 말씀에 대한 열심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사람과 물질을 찾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반가움과 교제로 대구제일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사람과 물질을 찾지 않고 말씀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일요일 새벽에 출근해서라도 일을 다 끝내고 어떻게든 교회에 가고 싶어 기다리는 지금이 바로 저희 부부에게는 다시 찾아온 신앙의 황금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대구제일교회가 좋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 그리고 사랑하는 딸만 함께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이 모두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가 대구제일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환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렙동상

2022년 교회학교 백서를 발간하며



강이철 장로
(교육2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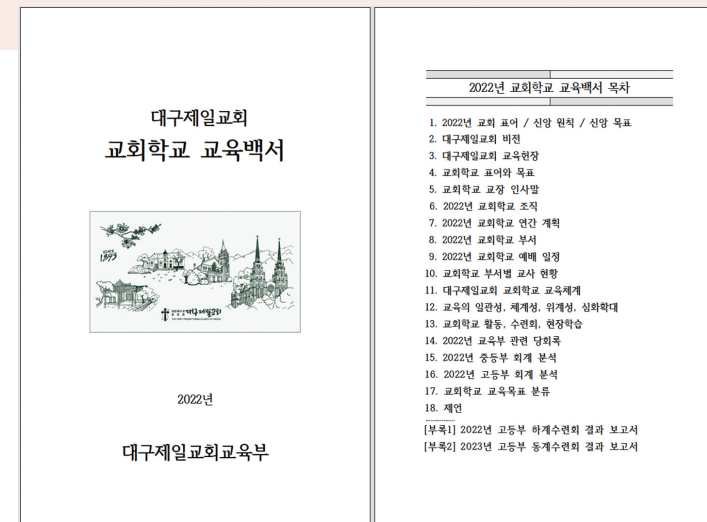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는 역사이다. 영남의 모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이 늘 함께하고 있으니 그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역사가 길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기록도 풍성할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 역사의 유구함에 걸맞게 그에 따른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대구 제일 교회 기독교역사관에 그 많은 기록 중 일부가 전시되어 있고, 교회 곳곳에 보관된 수많은 자료와 원로 하신 성도님들의 기억 또한 귀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최근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130년사 편찬위원회에 참가하여 3년간 봉사 중이다. 맡겨진 일 중 지난 20여 년간 당회록을 정리·분류하는 일을 하면서 최근 들어 교회의 많은 부서가 새로 생기고 그에 따라 사업과 봉사들도 획기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월 당회 때 논의되는 회의자료의 양이 해를 거듭할수록 몇 배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서를 담당하는 장로님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고, 기록 보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할당된 영역의 130년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당회록 뿐만 아니라 주보, 제직회 및 공동의회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기록의 망라, 성과, 정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기록물 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연도별로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 일부 연도에는 해당 자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데 개략적인 요약만 되어 있거나, 별첨자료로 첨부되어 있다고 하나 전산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제로 접하는 어려움은 각양각색의 모양을 띠고 있다.

우리 교회의 기록물들이 주변의 많은 교회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참고하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출처 자료의 원본이 되어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교회 기록물의 위상이 이와 같음을 인식하여 기록 정리와 보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은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의 과거-현재-미래의 역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그 예시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부부장, 장년부 부장, 그리고 제직회 서기와 홍보출판부 부장을 거쳐 현재 교육2부 부장과 새가족부 부장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한가지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후임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일을 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인데,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의 결실물로 이번에 교육 1·2·3부 부장·부부장과 함께 “대구제일교회 2022년 교회학교 교육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白書, white paper)는 원래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책인데, 영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표지를 하얀색으로 했던 데에서 명칭이 생겼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문서에도 '백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보다 넓은 의미의 종합적인 조사 보고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위키백과 인용). 이 백서의 표지와 목차가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 이번 발간된 교육 백서는 교회학교가 갖추어야 할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여 교회학교의 성격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많은 요소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각 부서는 1년간 참여 인원, 시행 사업, 예산집행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사업이나 행사의 여

러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놓는 정도로 기록을 정리하고, 교회 행정실에서 수집하여 한 권의 책자로 묶으면 훌륭한 기록물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좀 더 바라기는, 부서별로 작성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표준화하여 ‘작성 양식’을 제작하여 공유하면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서별로 수행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 양식’ 또한 제작하여 공유하고,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 설문 문항을 첨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누적된 성공의 경험은 지속해서 쌓아가고 부족한 부분은 점차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자 함이다. 이런 기록들이 모인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 기록은 더욱 정확할 것이고, 역사편찬 사업과 그 기록물 또한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불평등상

피택자 임직교육의 소회와 다짐



주기성 장로

뜻밖의 피택

'23.5.21일 나에게 잊지 못할 가히 역사적인 날이다. 공동의회에서 속개된 항존직 장로선거에서 3차까지 가는 선거 끝에 투표 결과를 박창운 목사님이 발표할 시점에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긴장하고 있었는데 내 이름이 맨 처음 호명되었다. 성도들의 선택으로 장로에 피택된 것이다. 주변에 계시던 여러분들이 많은 축하를 해주셨다. 내 얼굴은 미소를 띠며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그때까지도 심박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막중한 중책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는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후에 집에 와서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하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나는 결혼하고 나서 대구제일교회에 출석(2002.2월)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처음으로 2012년 12월 9일에 안수집사로 임직했다.

안수집사가 된 후 11년째에 다시 장로에 피택되었으니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남들보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저명하거나 출세한 사람도 아닐 뿐 아니라 더더욱 대구제일교회 출신도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또 그렇다고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집안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장로에 피택 되게 해주셨으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전무후무한 큰일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큰 복을 주신 것이다. 이는 정말 우리 집 가문의 영광이자 소위 말하는 세상 언어로 대박인 셈이다.

유익한 훈련과정

피택 이후 곧바로 6월과 7월 2개월(8주) 동안 경북노회 훈련원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기 피택 항존직 교육을 수료(매 강의마다 강사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소감문 작성 후 제출)하고, 9월에서 11월(3개월)까지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15주 차 교육(현대사회와 교회의 역할/교회란 무엇인가? 대구제일교회의 역사, 교회 생활(1) 말씀, 기도/교회 생활(2) 예배, 대표기도/교회 생활(3) 봉사, 전도/교회 부서 및 부서 탐방/교회 생활(4) 언어 생활/교회 생활(5) 가정생활/ 항존직의 역할과 교

회 행정/하나님의 비전/종강예배)을 마쳤다. 교육 때마다 강의와 조별 토론을 주관해 주신 모든 부목사님과 함께 수고한 피택된 임직 동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 역사에 대하여 강의해 주신 권오현 장로님과 임병규 장로님, 교회 시설 및 부서 탐방 교육에 이재정 장로님, 강영우 장로님, 임신영 집사님, 항존직의 역할과 교회 행정 교육에 이승환 장로님, 교육으로 수고하신 모든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위임목사님의 추천 도서 총 3권(『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엘리스 프라일링)』, 『순전한 기독교(C.S 루이스 저)』, 『하나님의 임재 연습(로렌스 형제 저)』)을 읽고 임직 교육 기간 중에 소감문도 작성 제출하였다. 이번 총 5개월간 임직 교육을 받으면서 새롭게 접한 내용도 있었고, 막연하게 알던 개념들을 추천 도서를 통하여 좀 더 이해한 부분도 있었다.

임직 과정 중에 장로 고시 준비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데 성경 과목을 면제받으려면 '소망의 이야기(중급과정)-신, 구약 2권'의 문제집을 풀어 별도 답안지에 적어서 총회에 보내 노회 교육 수료 전에 일정 점수(60점) 이상이 되어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짧은 기간 내 밤늦게까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몇 배 이상의 노력으로 통과하여 졸업 증명서(7.30일)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 노회 주관 피택 장로를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2일간)을 9월에 남덕교회에서 받았고, 노회 주관 교육 참여(8주)와 총회 성경통신 중급과정을 통과했기에 장로 고시(10.4일 남덕교회)는 신조와 요리문답 과목만 시험을 치르고 두 분의 목사님과 4명의 피택 장로가 한 조가 되어 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피택 장로들에게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질의와 가족사항, 직장생활 등을 질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과 각오를 말했고 끝으로 목사님들의 권면의 말씀으로 면접을 마쳤다.

피택 장로의 교육과정이 끝나고 장로 고시 시험 당일에 시험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임직선배 장로님들(김경식, 최진연, 이정목, 이형원, 권순철 장로님) 다섯 분이 우리를 격려하려고 찾아오셔서 맛난 점심을 사 주시면서 선임 장로님들의 경험담과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지면을 빌려 그때 격려차 방문해 주셨던 선배 장로님들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총 5개월간 임직 교육 과정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소망 이야기(중급과정)-신, 구약 문제 풀이'를 위해 밤늦도록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 애썼던 과정과 목사님의 추천 도서 3권을 읽고 소감문 작성하는 것도 글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는 당하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부서 탐방 교육 후 임직자들과 함께 교회 주변 쓰레기 줍던 일, 교회의 역사를 듣고 난 뒤 구 예배당 종탑에 올라갔던 일과 교구의 날 식당 봉사와 사회복지부 토요 도시락 나눔 행사에 참여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노회 주관 임직 교육과 수요 예배 후 조별 토론했던 일과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임직자로서의 준비되고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내 경우는 직장에서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등 업무 처리 때문에 임직 교육 참석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한 적이 몇 번 있었으나 모든 과정을 잘 헤쳐 나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각오

또 한 권의 추천 도서 『장로의 헌신, 장로의 영광(이만규 목사 저)』은 장로로서 임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3번 읽어보았습니다.



장로 직분이 교회 리더로서 역할과 목회자와의 협력적 관계, 신앙의 성숙을 통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 등등 할 일도 많고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아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과 교회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과 각 지체들을 돌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등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바로 잡아주시고, 바르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며, 향존직 직분자로서 갖춰야 할 신앙의 바른 생각과 자세, 목회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데 힘을 다하고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끝으로 제일의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너무나 부족한 제가 장로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교회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꼭 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렙동상



권사, 그 영광스러운 직분



박병애 권사

지천명이 훌쩍 넘는 나이가 되도록 사회 활동을 이어오다 보니 얻게 된 여러 직책이 오늘날까지 제 이름 뒤에서 저를 떠받쳐 장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세상의 직책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고, 그 열심을 보아왔던 주변인들로부터 “대단하십니다”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되면서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긴 여정들을 돌이켜 보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채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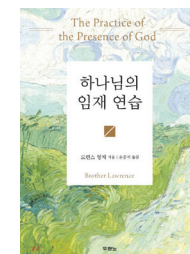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이르도록 살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나이에 세상의 잣대에서, 많고 많은 공백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23년 향존직 권사에 피택되면서 선택 받은 이를 위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 ‘직분자의 소명, 직분자의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윤리, 교회의 본질, 사명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교리, 교회의 역사(정통·이단), 헌법과 권징, 예배·예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

교회 내 향존직 피택자 교육에서는 ‘현대사회와 교회의 역할, 교회란 무엇인가?, 대구제일교회 역사, 교회생활(말씀, 기도, 예배, 대표 기도, 봉사, 전도, 언어생활, 가정생활)’ 등과 수요 저녁 예배 후 말씀으로 함께 토론과 교제를 통하여 말씀의 지경을 더 넓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알고 나누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세 권의 필독서를 읽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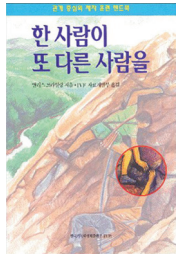
도서 :



「하나님의 임재 연습」



「순전한 기독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아마도 이러한 기회가 아니었다면 좀처럼 자발적으로 읽지 못할 책들이라 의무감과 과제 수행을 위해 읽기 시작하였으나 책 속의 보이지 않은 손이 책 속으로 저를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자세는 점점 더 정자세가 되고 책장을 넘기는 속도는 조금씩 조금씩 더 느려지게 하더니, 한 페이지에서 오랫동안 붙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묵상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급기야 책에 온통 밀줄을 그으며 읽게 되었고, 어느덧 뽁뽁이 그어놓은 밀줄들은 제 생각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

권사라는 직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명이라면 지금까지 건조하기만 했던 내 신앙에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지, 교회의 가장 큰 책무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깨우침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직책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채움’이 아닌 ‘비움’의 훈련과 항존직으로 피택 받은 권사 직분 앞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땀과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제자 삼기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 *출렐동상*



감사사(感謝辭)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드려진 교회 감사기도



이승환 장로
(당회서기)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온 회중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모든 인생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음도 아십니다. 우리는 숨 쉬듯이 죄를 먹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이 온대, 주께서는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대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시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의 명예를 메고, 수고와 고통의 짐을 지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걷던 자들이었습니다만, 주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다시던 그 크신 손으로, 인생들을 모태에서 빛으시던 그 섬세하

신 손으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어 모든 세상 거민이 볼 수 있게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대구제일교회가 이 감사의 제사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사람 BLESS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2023년 교회 앞에 세우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댄동산 책자의 발행이 100호를 넘어, 성도들의 사랑방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솟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한 자들의 사역과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창립된 지 130주년을 맞아 ‘주님의 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창립행사를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교사와 많은 교역자들, 그리고 이 진리의 터를 거쳐 간 수많은 선배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가 시온성과 같이 든든히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네팔 심탈리 지역과 키르키스스탄 칸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심도 감사드리

며, 양인모 목사와 권은비 사모를 몽골 선교사로 파송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흠커밍데이를 개최하여 교회를 거쳐 간 많은 교역자를 초청하여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기당회록을 편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인도하셨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로부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운행하심 아래에 있게 하시고, 질서를 따라, 말씀에 따라 양육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창운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힘써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직원들에게도 건강과 헌신하는 맘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수고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사역을 따라 맡기신 부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잘 치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바이블스터디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퍼스트스텝행사를 인하여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명의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을 세우셔서 중직을 맡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구 만남의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70여 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교구와 순모임에 잘 적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봉사로 충성하신 시므온과

안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두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심같이,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심같이, 한 해 동안 우리 인생들의 많은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웃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돕고 나누는 손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들에 문제들을 주셨사오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병들을 만나게 하셨사오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들과 위로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친히 손을 얹어 낮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나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거절하신 크신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그윽한 향기나는 감사들이 모이고 쌓여, 만 가지의 감사가 주 앞에 올라가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 감사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 2023년 추수감사절 대구제일교회 성도 일동 -

| 불행동상

선교, 왜 이때여야 하는가?



양인모 목사

“목사님... 맑아지셨습니다.”

얼굴을 뺨히 쳐다보시던 강영우 장로님께서 내게 건넨 첫 인사말이다.

맑아졌다. 환해졌다가 아닌 맑아졌다. 곰곰이 되뇌어 볼수록 참 멋진 표현이다.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였다.

솔직히 한국을 떠나 산다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고, 체력의 한계도 찾아와 대상포진부터 해서 여러 검사마다 몸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마음도 지쳐있었다.

그렇게 총회 선교 훈련에 입소하였고, 쉽지 않은, 꽤 힘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교회에서 강장로님은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환한 미소로 맞아 주셨다.

맑아졌다?? 한편으로는 맑지 못한 어리석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기다려주신 성도님들의 인내와 배려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장로님을 바라보던 나의 얼굴은 도리어 붉어졌고, 눈물이 핑 돌았다. 너무나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던 것이다.

사랑의 빛뿐만이 아니다. 나를 위해 희생해 준 동료들이 있다. 고향도 다르고 생각과 성격 등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동료라는 이유 하나로 한 마음으로 뭉쳐 끈끈한 전우애(?)로 나의 빈자리를 각자가 분담하여 2달여간 메워준 것뿐만 아니라 더 잘해준 부목사님들(그리고 김전도사님~). 잘

지내고 계시냐며,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응원해 준 지금의 동료의 있기에 양인모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제일교회에 올 수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만약 대구제일교회에 부임이 되지 못했다면?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2017년 12월 25일, 대구제일교회와의 첫 만남이 있던 날이자 면접 날. 박창운 담임목사님께서 면접 질문으로 나에게 세 가지를 물으셨다.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청년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임한 후 담임목사님께서 존스토티 목사님을 정말로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다행히 면접 때 답했던 읽고 있던 책도 존스토티 목사님 책이었기에 자연스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던 것 같다. 나의 청년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크게 공감해 주셨고, 분위기도 좋았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큰 고비였다.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 교회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라는 위치에서 생각해 본다면 선교사로 나갈 부교역자를 뽑는다는 것은 어쩌면 큰 리스크(손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다음 담임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



다. “그래요, 그 꿈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간직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님의 선교사 꿈을 위해 함께 해 줄게요.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순 없지만 여기서 같이 사역하면서 잘 준비해 보세요.”

총회 선교 훈련에 입소한 후, 총회에서는 교인의 감소, 그리고 헌금의 감소, 선교 후원의 감소, 선교사 지원자의 감소, 선교사 추방/전쟁/전염병 등 한국 선교의 위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알려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총회(제108회)에서 결의하기를 선교사 지원(물질과 헌신자)이 부족하기에 총회 선교 훈련을 2년 뒤인 2025년에 열기로 하였다.

당신은 왜 이러한 때에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리고 선교지에서 당신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자리인가?

9가정이 함께 훈련받으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9가정은 저마다의 응답하심과 사역에 대한 비전을 점검해 나가며 점점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어려운 때에, 힘겨운 때에, 왜 선교사여야 하는가?

선교 지원도, 헌신자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 한국교회는 점점 선교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당신은 왜???

그렇다면 지원도 많아야 하고, 한국교회가 위

기가 아니어야 선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위기는 언제든 있다. 다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가는 순종의 영역일 것이다.

이것은 비단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만의 영역이 아니다. 선교사를 위해 더 많은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감당해야 할 교회의 순종이기도 하다.

한국교회의 부흥기에 분명 대구제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이 나왔고, 지금도 열방에서 훌륭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대이다. 모든 면에서 어렵고, 부정적이고,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제일교회는 지금 엄청난 영적 도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그것도 부족하고 어리숙한 양인모 선교사를 말이다!!

말아졌다. 그것은 나의 모습이 아닌 바로 나를 파송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얼굴이다. 위기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우리 교회의 영성이리라.

아무리 빛이 밝아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뿌옇고 탁해진다. 숨쉬기 힘들고, 눈을 뜨기 어렵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이내 곧 깨끗한 공기와 밝은 빛을 보게 된다. 훈련하는 동안 점점 더 커가는 우리 교회의 고마움, 그것을 알게 해 주신 성령님의 응답은 나에게 바람과 같았다. 그리고 나의 시야, 영혼의 호흡은 맑아진 하늘을 보는 듯 개운해졌다. 그렇게 나는 훈련에서 돌아왔고, 나의 맑음이 교회의 영성임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을 통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빛을 볼 수 있도록,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더 맑게, 영혼을 더 맑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

출렁동상

남선교회 연합 가을 야외예배 동행기



이주하 협동장로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일시 : 23년 10월 28일(토) 07:50~19:00

장소 : 담양 및 순창 일대

정확히 아침 8시, 남선교회 연합 야외예배로 교회 빨간 버스가 떠났다. 출발과 동시에 이번 남선교회 연합 행사를 주관한 6남선교회 손웅기 회장은 수고한 집사람 이야기를 살짝 곁들이며 간식 한 보따리를 안겨 주었다. 준비한 간식 중에는 최고의 압권이 옥수수였다. 김이 술술 나는 따끈한 옥수수! 손 회장은 간식으로 옥수수가 있어야 한다고 이인형 장로님이 적극 추천 하셨다면서 이걸 ‘국물’이라 한다. 여기저기서 ‘국물이 뭐지? 뭐야?’ 묻는다. 아참! 그것도 몰라요? 그건 ‘국가의 물’이라는 거예요. 모두 박장대소하며 ‘국물’ 으응 ‘국물’ 을 연창한다.

찾간에서 손 회장의 순발력과 진행 능력은 유감없이 발휘된다. 모두가 하나씩 상품을 타도록 준비했다며 너스레 떨고서는 나라별 국기 카드를 꺼내 든다. 첫 번째 카드는 사우디 국기다. 국기 아래에 기다란 칼이 있는 인상적인 국기다. 아무리 봐도 어느 나라 국기인지 모르겠다. 손 회장이 ‘시장에 가면 이 칼은

이천원 합니다’며 농을 이어가자, 류신철 회원이 쟁쟁게 소리쳤다. 사우디! ‘네 정답입니다’며 치약 상품이 건네진다. 포르투갈, 노르웨이 국기가 연달아 올려지고 박창식 회원이 ‘잉글랜드’ 하며 큰소리쳤지만, 여지없이 ‘땡’ 처리를 당하여 웃음보를 안겼다. 그 와중에 황천호 목사님이 불편한 다리로 세우며 출발 기도를 했다. 게임 중 호주와 뉴질랜드 국기가 모양은 같은데, 호주는 흰 별이고 뉴질랜드는 노란 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발견의 기쁨을 누렸다. 그건 혼자만 그랬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남선교회가 친교를 나누어야 하며, 6남선교도 열심히 하겠으니 잘 모이지 못하는 8, 그리고 9, 10선교회의 파이팅을 부탁하는 기도성 당부도 이어졌다.

방풍로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 하천가 국숫집에서 아침 겸 점심으로 면발 굵은 국수와 탁 쏘는 비빔 국수를 먹었다. 느티나무 같은 ‘푸조나무’와 느티나무로 구성된 1.4km의 담양 제일의 관방제림을 거닐 수 있는 풍류도 누린다. 맨발 걷기 대회가 마침 열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의 보오얀 발이 눈에 들어

을 때면 신발이 부끄럽다. 이어지는 메타세과
 이아 길은 담양을 찾는 사람들의 제일의 명소
 이다. 여기서 한 컷 하지 않을 수 없다. 우~ 모
 여서 기념사진 찍기도 하고, 각기 포즈를 취해
 사진을 찍으면서 쪽쪽 자란 나무의 황갈색 색
 깔을 휴대폰 사진첩에 깊숙이 담아본다. 걷던
 중 기다리던 차가 오지 않아 잠시 우왕좌왕하
 는 모습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저씨들
 어디로 가세요' 했다가 찬 서리 맺히는 행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된다. 찾
 아 들어간 한옥집 식당은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어온 듯 복잡하다. 큰 방 한쪽에는 상이 들
 어와 먼저 식사를 하고, 우리는 그 큰 방에 군
 불 떼듯 죽치고 기다려야 했다. 늦게 들어온
 상이니만큼 불고기와 푸른 나물, 그리고 조기
 가 나왔다. '영광 굴비 아니면 안 먹어' 소리가
 들리자, 주인장은 껌싸게 '우리는 영광 굴비
 아니면 안 써요'로 대처한다.

'순창에 왔으니 채계산 출렁다리는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동의를 구하자 '순창
 하면 고추장 생각만 난다'는 볼멘소리가 여럿
 들린다. 동의도 받기 전에 버스
 는 이미 출렁다리에 진입한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출렁다리를 향
 해 진격한다. 어떤 분, 모두가 알
 만한 분이 '유격' '유격'하며 힘을
 돋우지만 여성분이라면 '이건 아
 니네'라는 생각이 절로 났을 것이
 다. 빨간 로프가 인상적인 출렁다

리를 걸으니 하늘에 붕 떠 있는 기분이다. 기
 분이 날아갈 것 같다는 이야기지.

돌아오는 길에는 논공의 사골탕 집에서 윤
 기 나는 흰 곰탕에 기름진 건더기가 느껴지
 는 저녁을 먹었다. 연신 내일 식사하는 사람
 은 도둑이라는 농을 할 만큼 걸죽했다. 찻간에
 서는 신성운 선교사가 현재의 하마스와 이스
 라엘의 전쟁 배경이 되는 이슬람문화와 종교
 를 조곤조곤 짚어주신다. 우리의 교회학교 아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물을 만큼
 집중력 있는 강의였다. 그리고 보니 이번 23
 년 남선교회 연합예배는 입도 즐겁고 산천초
 목도 구경하는 야유포일뿐만 아니라 이슬
 람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된 셈이다. 이를 일컬어 일석이조
 라 하지 않는가!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6남선교회가 중
 심이 되어 김양명 은퇴 장로님 등 여러 장로
 님의 참여와 5남, 7남 등의 선교회가 서로 연
 합하는 남선교회였기 때문이라! 수고한 모
 든 손길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남선교회 연합 가을 야외예배에 동행한 이주하 편집위원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교회학교



영아부



09. 24. 야외예배



11. 12. 블레싱사위

유치부



9. 24. 가을모교제(소풍)



10. 29. 종교개혁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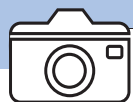
초등2부



10. 29. 야외예배



11. 19. 추수감사절 초등1·2부 연합예배



사진으로 보는 교회학교

초등 3부



중등부



중등부



청년부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3. 09. 17. 제2권사회 바자회



2023. 10. 04. ~ 11. 01 매주 수요일 동산 무지개 학교



2023. 10. 08. 세례, 입교식



세례 _ 김광일 성도, 김석주 성도

입교 _ 손한빈, 조아름, 조아라, 조재현



2023. 10. 22. 교구만남의 날



2023. 10. 29. 키르기즈스탄 박소연 선교사 보고



2023. 12. 10. 이스라엘 신성운 선교사 보고



2023. 11. 06. ~ 10. 하반기 바이블아카데미(사사기, 오늘을 읽게하는)



2023. 11. 05. 12. 19. 추계말씀집회(3人3色)



2023. 11. 12. 제1117공병단 부대방문 및 추수감사절 합동 기념 예배





2023. 11. 16. 국내선교부 기독역사탐방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 부산진교회, 일신여학교)



2023. 11. 19. 추수감사절



2023. 11. 26. 201신속대응여단 독수리교회 추수감사절예배



2023. 11. 26. 양인모목사(권은비사모) 몽골 선교사 파송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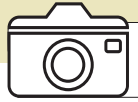


2023. 12. 02. 교사세미나



2023. 12. 09.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2023. 12. 10. 순 종강기도회



2023. 12. 10. 청년부헌신예배



2023. 12. 16. 새가족 환영잔치



2023. 12. 17. 항존직 은퇴(추대) 및 임직예식



장로은퇴 이승환 최무진 김경식



안수집사은퇴 이재울 김동현 안상근 한도흥 배영석 이기덕 양재형 손해식



권사은퇴 손혜숙 강덕란 권은화 박미자A 김성은 권영화 한교선 박춘화 이순자B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명예권사추대 김영숙A 김정희C 배경옥



장로장립 주기성 이재환



안수집사안수 류신철 박창식B 박재덕 최교승 전병도 백창흠 이창구 손재현 안병민



권사안수 김정숙D 권혜경A 박병애 이주현 김순남 이동유 박지현A 김신희 손성진 서혜진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3. 12. 24. 유아세례



이봄 _ 이재찬, 김정애 성도



배이현 _ 배정진, 이민정 성도



김나은 _ 김영민, 김수진 집사



이호민 _ 이정원, 강선영 성도



김태은 _ 김원석, 정창희 성도



임승규 _ 임병민, 윤기쁨 집사



이다니엘 _ 이승호, 임미리 집사



신윤아 _ 신인철, 백은정 집사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3. 12. 24. 유아세례



서하루 _ 서성준 목사, 강영주 사모

2023. 12. 24. 아동세례



이서형 _ 박보드레 성도

2023. 12. 24. 교회학교 성탄축하발표회



성탄발표사회자 _ 청년부
김예은, 하예준



성탄발표인사 _ 유치부
신다윗, 박태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초등3부



초등4부



중등부

고등부



2023. 12. 25. 성탄축하예배 (연합찬양대)



교파 분열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



권오현 은퇴장로

[머리글]

‘물댄동산 100호’ (2022년 12월호) 특별 지면을 시작으로 물댄동산 103호 (2023년 9월호)까지 4회에 걸쳐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한 25개 교회의 설립 이유와 과정을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 노선의 차이로 인하여 분리된 3 교회에 대한 역사적 기록도 간략하게 서술 하고자 한다.

대구제일교회 130년사편찬위원회
권오현

1) 봉산교회 (현 드림교회)



이만집 목사가 자치 선언을 하고 경북노회를 탈퇴하여 제명된 1923년 이후에도 남성정 예배당을 불법 점거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의 예배당 명도소송 패소 판결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게 된다. 조선예수교 대구예배당은 1929년에 52명의 교인으로 동운정에 설립되었으

며, 이만집 목사는 1932년 봉산정으로 교회가 이전하기 전까지 잠시 시무하였다. 그 후 1937년에 덕산교회¹⁾ 대명교회 등을 통합하여 봉산교회라 하였으며, 1993년 지산동으로 이전하고 드림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2) 성남교회 (현 성동교회)



1) 남산정교회 김덕경 등이 자치 파동 이후인 1923년 11월에 설립한 교회

서산교회(西山教會)는 우리 교회에서 스물한 번째로 분리한 교회로서 1979년에 대구시 용산동에 세워졌다. 설립 당시에는 셋집 이층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그 후 대지를 구입하고 예배당을 지었다. 설립 초기부터 김상두 목사가 열성적으로 개척목회를 담당하였으며 지역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 교회분립에 대해 1443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52년 5월 25일 하오 1시반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개최하다.

고신파로 간 교인 중 좌기자 제명하기로 하다.

고경희 최창순 김체문 이동수 김남수 고임조 이정숙 황영신 안태경 구춘선 장병의 박동호 방달순 김 순이 서복조 백남규 전도선 이명선 박순기 임장실 임승수 (21명)

회장 오태환, 서기 강신철

3) 수석교회



기장파(基長派)는 신앙 노선의 차이에 따라 총회에서 분리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이다. 우리 교회에 시무하던 오태환 목사가 1955년 3월 당회와의 불화로 사임하고 추종하던 교인들과 삼덕동에 예배 처소를 마련한 후, 곧

이어 1955년 11월 덕산동에서 수석교회를 설립하였다. 우리 교회를 떠나 기장파에 합류한 교인은 장로 2명, 권사 4명, 집사 7명 등 재직 13명이었으며 교회에서 제명되었다. 수석교회는 1987년 중동으로 이전하였으며, 교회분열에 관하여 제877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55년 5월15일 하오3시반 임시당회로 동산야외에 배 장소에서 개최하다.

제일교회를 불법 이탈 집회하는(오태환목사 중심) 제직들에게 귀환하라는 통고문을(5월15일까지) 발송한 바 내 귀환의사 없음을 인하고 좌기와 여히 처리하기로 가결됨(오태환목사, 장로 2명, 권사 4명, 집사 7명, 계13명)

1. 오태환목사에 대한 건, 5월2일자 통지문과 여한 사실대로 노회에 보고기로 하다.

2. 현상회 성기갑(장로), 이혜경 신옥석 정춘영 김정주(권사), 노진환 김정한 박유해 정태영 김용주 최윤희 장영신(집사)

우 제직들 귀환 의사 없음으로 제명 처분기로 하고 내 5월 22일 주일 교회앞에서 정식 광고기로 가결하다.

회장 이운형, 서기 강신철

물댄동산

새로운 교역자 소개

박평화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유치부 박평화 전도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리베리 스토로베리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박평화 전도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대구제일교회 교육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구제일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모토로 5대째 내려오는 모태신앙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언제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외할머니와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며, 가진 것에서 나누며 살아야 함을 보여주신 부모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란 대구 토박이입니다. 대구 남덕교회가 저의 모 교회이며 영남신학대학교를 진학 후 20살 때부터 시작한 사역자의 삶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칭 잘생겼다고 말하는 남편의 아내와 예쁜 딸의 엄마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30년 귀한 손님이라는 과정을 몸소 매일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는 30년 동안만 우리 곁에 머물 손님이니 아이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귀한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만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는 손님이니 중심을 자녀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함을 가정과 사역 현장에서도 함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생물학적인 자녀와 그리고 마음으로 품어야 할 사역 현장에서의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아이들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내 꿈으로 아이들을 제한하지

1) 2016년 1월 3일 ~ 2021년 12월 26일 1차 재직, 2023년 9월 3일 : 2차 부임

않으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인간의 전반적인 발달 심리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통한 태아 학교, 엄마와 함께 배우는 아기 학교, 부모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에 심리학에서도 특히 발달 심리를 전공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영유아기 때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것은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업과 놀이를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부모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교육도 필요하며, 기독 학부모로서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신앙의 대를 잇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로 먹이고 양육하는 데 있어 아이들의 상황과 심리를 이해하며 혼자 아닌 더 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 견고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아동가족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가 전공한 기독교 교육, 유아교육, 심리, 아동가족학의 공부들이 함께 나누는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되며, 또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각자 아이들의 마음 창문을 더 크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혼자가 아닌 삶이라는 예배 속에서 친구, 형제자매, 가족도 만들어 주며, 교회와 학교, 그리고 더 큰 삶이라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힘차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로 다시금 대구제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유치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치부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율령동상



주님과의 첫걸음 **퍼스트스텝**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로마서 8:39)



조혁상 안수집사
(새가족부 부부장)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정체되고 변화된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 환경의 멈추었던 시곗바늘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 곳곳에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새가족 및 초신자를 위한 퍼스트 스텝(First Step) 프로그램 1기 진행된 후, 2년만인 2023년 10월, 퍼스트 스텝 2기를 5주간 진행하여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3기, 4기의 행사도 한 부서의 프로그램이 아닌 전교인,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도우며, 새가족 및 초신자들이 새롭게 믿음공동체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퍼스트 스텝(First Step)이란?

새가족, 초신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 플로팅 성도, 혹은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말씀과 교제, 나눔의 과정을 통하여, 초대된 대상자(게스트)들이 대구제일교회(First Church)에서 주님과의 첫걸음(First Step)을 걷도록 도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교육하는 신앙 프로그램으로서 골로새서 1:28~29의 말씀

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하노라"

대구제일교회 새가족부를 통해 6주 교육 수료 후 교인으로 정식 등록되는 성도가 매년 100여 명 내외입니다.

6주간의 교육 수료 후 구역, 남선교회, 여전도회, 기타 순모임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제하고 신앙을 키워나가야 함에도 일관된 신앙 프로그램이 미흡함으로 어렵게 교회로 나온 새가족, 초신자가 대부분 교제와 나눔의 기회를 지속해서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퍼스트 스텝은 이런 현실들을 보완하는 후속 프로그램입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새가족부에서 6주 교육을 수료한 새가족들이 의무적으로 퍼스트 스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각 5주(5회)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8년경 교회 내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알파 행사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퍼스트 스텝 행사도 새가족, 초신자들을 위한 신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여, 수료자들이 든든한 교회의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퍼스트 스텝(First Step) 2기 진행 소개

2023년 10월 5일 ~ 11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19:00부터 21:30분까지 5주간 퍼스트 스텝 2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새가족부 교육을 수료한 새가족, 주위의 초신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6명(5개 조)을 게스트로 초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 운영위원과 스텝 모집

- 운영위원 : 목양부 주관(2024년도부터 새가족부 주관)
새가족부, 국내선교부 협조 회계, 전산
- 스텝 : 중보기도팀, 관리홍보팀, 찬양팀, 조장팀, 장식팀, 만나팀

2) 교육 및 진행

- 각 주차 유형별 강사(담임 및 부목사)
- 주제별 강의 나눔, 말씀 카드 외우기 숙제, 편지쓰기, 서로 축복하기
- 조별 나눔 및 발표
- 찬양, 허깅, 마지막 주 세족식
- 수료증

대부분 새가족부를 통한 새가족과 교회에 처음 오신 두 분, 타 교회에 가끔 나가시는 한 분으로 남성 2개 조, 여성 3개 조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운영 위원과 스텝들의 기도와 주님의 도우심 속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당 지하 1층 찬양팀의 은혜롭고 활기찬 찬양으로 게스트들을 환영합니다.



첫날 다소 어색한 분위기로 조별로 인사하고 식사하며 조장의 리드로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1주 차 어색한 분위기가 차수를 거듭할수록 밝아지는 모습에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나눕니다.





조별 과제 발표



조별 한컷



세족식 눈물바다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란 주제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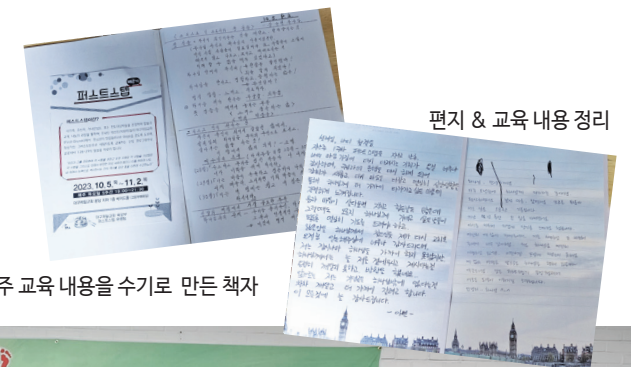
마무리

게스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차를 거듭하면서 밝아진 표정과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역력합니다. 적극적인 교제와 나눔을 보면서 부족했지만 더욱 알차고 은혜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순모임에 가입하셔서 열심히 신앙을 키워나가는 분, 주일 가게 오픈으로 새가족 6주 교육을 받지 못할 상황임에도 퍼스트 스텝 수료 후 흔쾌히 6주 교육을 받고 계신 분, 열심히 1부 찬양대 기약으로 무료 봉사하시는 분 등등 퍼스트 스텝을 통하여 주님 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부서의 행사가 아닌 온 교회의 관심으로 추천되고 변화되는 게스트로, 주님의 일꾼으로, 대구제일교회의 든든한 성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5주간 열정과 사랑으로 섬기신 스텝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해지시길 기도하며 앞으로의 행사에도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렁동상**



매주 교육 내용을 수기로 만든 책자

편지 & 교육 내용 정리



[청년부 사역]

쫄방 나눔 인터뷰

청년부 품공동체에는 7개의 사역팀이 있다. 그중 선교 나눔팀은 국내/외 선교지,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팀이다. 연간 여러 활동 중 이번 11월에는 ‘쫄방 나눔’을 다녀왔다고 하여 이들을 만나고 왔다. 그 현장을 들여다보자.

박상은 선교나눔팀장 그리고 팀원 인터뷰 및 기사정리 곽지예, 김원진

선교나눔팀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품공동체의 선교나눔팀입니다. 요한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두려움 없는 사랑’을 비전 삼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사역을 준비하고, 품공동체 모두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쫄방은 어떠한 곳이며, 나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쫄방’은 방을 쪼개어 사용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만인 곳에서 생활하는 빈곤 계층을 위한 공간이지요. ‘대구 행복 나눔의 집’이라는 기관에서 관리하시는데, 이곳을 통해 방문 일정을 계획합니다. 방문 시 생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하여 2개월마다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나눔을 통해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쫄방 나눔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2012년, 공동체 방향성이 나눔과 봉사에 맞춰져 ‘쫄방’을 방문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방문하다가 현재는 사회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정도 활동하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쫄방촌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11월 방문에는 추수감사주일 맞기로 과일과 쌀 등 풍성하게 전달해 드렸다고 하던데.

올해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쫄방 예정일이었습니다. 마침 품공동체 예배팀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해에 대한 감사를 묵상하며 감사과일바구니를 꾸리고, 과일은 쫄방 이웃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준비하게 되면서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수집사회에서 쫄방 나눔을 위해 10kg 쌀을 120인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추수감사주일 ‘감사과일바구니’와 안수집사회 쌀 후원〉

쫄방 나눔을 통한 반응들은 어떠한지.

쫄방 현장에서는 저희 방문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나눔일 수 있으나, 그분들에게는 참 크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품을 준비할 때 봉투 안에 말씀 카드를 작게 프린트해서 넣어 드리거든요. 말씀 구절과 저희의 방문으로 작게나마 위로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2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며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쫄방 나눔은 우리 지역 사회 이웃을 살피는 일이니,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웃을 살피고 돕는 활동을 하면서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쫄방 방문 전 함께 기도〉

매번 나눔을 준비하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올해 선교나눔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쫄방을 한 번 나갈 때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가치 있는 물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준비하는 것이지만, 갈 때마다 팀 안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배분해서 준비합니다. 어떤 물품을 좋아하실까, 계절에 따라 달라야 하지 않을까 등 이런저런 고민을요. 아무래도 저희 5명이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품공동체 지체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고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쫄방 나눔〉

어려운 부분으로는, 쫄방 나눔을 할 때 구역별로 품(조)을 나누어서 진행하는데요. 총 100가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품별 방문 참석률이 저조하게 되면 배부가 힘들어지게 되지요. 품공동체 모두가 가볍게 산책하러 간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쪽방 나눔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특별히 쪽방 나눔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방문하여 기도문을 읽어드리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제한되면서부터는 물품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나누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단 물품만 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살려야 하는 이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품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올해도 쪽방 나눔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회복지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청년부 품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쪽방 사역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품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모두의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기쁘게 동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나눔팀에서 준비하는 활동들은 교회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역이니만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청년들이 더욱 힘을 내어 잘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평동상**



왼쪽부터 박상은(선교나눔팀장), 이정은(팀원), 김원진(홍보출판부), 광지예(홍보출판부)

외부 기고문_우리 결의 이단

2023년, 온·오프라인으로 여전히 진화하는 포교전략과 대응 방안4

BIG 3 이단,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 결론



작성 _ 탁 지원 소장

성결대학교 신학과,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Th. M) 졸업
전 한국기독교잡지협회 회장
현 월간 현대종교 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백석대학원, 한세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신대원 등
현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 코스타 강사

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2편



대구 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봉사활동

4) '하나님의 교회'의 활동

① **현황** - 신자 수는 10만~20여만 명 이상 모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400개 교회와 해외 2,000여 개의 처소가 설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는 해외 선교에 이단 문제가 빠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줬으면 한다.

②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 - 언제, 어디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활동은 환경보호, 아동과 노인복지, 자원봉사, 구호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심각한 이단이 아닌 유명 사회

봉사단체로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

- ③ **어린이 교육** - 일반교회 부설 기관처럼 ‘하나님의 교회 부설’로 ‘셋별 선교원’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교회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메인화면에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이들로...’라는 깔끔한 문구가 공감대를 일으킨다.



- 5) **미혹** - 이들의 포교 방법은 2인이 짝을 지어 가정집을 방문하거나(코로나 전) 거리에서 설문조사 등의 포교를 하는데(코로나 전과 현재), 절대로 처음부터 안상홍과 장길자를 전하지 않는다. 이들은 ‘멜기세덱 성서교육원’ 등에서 나왔으며 “기독교 교리와 그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하며 접근한다. 설문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성명, 직업, 나이,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거나 성경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먼저

침례를 받게 한다. 그리고 이후 조금씩 교리를 가르친다.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 하늘 어머니도 있지 않겠냐?’며 안상홍과 장길자를 성경 이상의 구원자라고 주장한다. 최근엔 ‘어머니 사진전’ 등을 통해 포교하고 있고, 특히 30~40대의 여성들이 신자의 주를 이루고 있다. 학부모 관계를 통한 포교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6)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피해를 주는가?** -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 종말이 오며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인침을 받은 144,000명 이외에 모조리 멸망한다.”라고 주장했고, 이후 지속해서 해를 바꿨으며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유포하는 한편 가족들과의 마찰로 가출하는 신도들로 인해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되어왔다. 1999년에는 Y2K 등의 사회여론과 이에 편승한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상과 ‘하나님의 교회’의 실상 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2012년이 마지막 때라고 한 번 더 주장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다.

- 7) **대처** -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준수 여부와 절기를 지키는 날짜 등을 들고 접근한다. 이단들은 표면 교리(선전교리)와 이면 교리가 있는데, 감춰진 이면 교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가르친다. 특히 이들은 불리한 교리는 점점 감추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하고 있다. 시한부 종말론, 144,000명 구원 등 핵심적인 교리가

실패하고 변경했음에도 신도들은 교회가 바꾼 교리에 순응하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신앙의 열심에 한 번쯤 심표를 찍고, 모순이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러기에 이단들이(이단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도) 설문 등으로 접근할 때는 반드시 교제는 주의, 전화번호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단들과 마주했을 때 달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는 진짜인데 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저들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함이 필요하다.

나. 구원파

9년 전 세월호 침몰 사건에 세칭 구원파(이하 구원파)란 단체가 깊숙이 개입된 일이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 기독교복음침례회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유병언 구원파는 1987년 경기도 용인의 모 공장 식당 천장에서 32구의 시신이 발견된 오대양 사건 등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여러 사건, 의혹들을 몰고 다녔으며, 최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더욱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 단체이기도 하다. 부디 세월호 사건 등 그간 여러 사건의 결말이 한 점 의혹 없이 반드시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목,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의 구원파를 비롯해 두 곳의 구원파[박옥수(기쁜소식선교회), 이요한(생명의말씀선교회)]까지 가세해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신천지만큼 주목해주길 바란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유병언씨 생명의말씀선교회 이요한씨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

1) 종류와 특징

구원파는 미국 등지에서 파송된 자칭 선교사들에 의해서 수입된 이단이라 할 수 있다. 구원론의 문제 등으로 보통 ‘구원파’라고 부르나 실제 그들이 쓰고 있는 이름은 유병언(권신찬) 계열은 ‘기독교복음침례회(정통 침례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한국침례회이다’), 이요한, 박옥수 계열은 ‘대한예수교침례회’라는 이름이 있고, 각각 ‘생명의말씀선교회’와 ‘기쁜소식선교회(이하 기소선)’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이렇듯 구원파는 크게 세 계열로 나뉘어 있다. 자신들만 구원받고, 한번 회개하면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모두 이단으로 규정됐다.

(1) 유병언(권신찬) 계열

서울 삼각지에 위치한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이나 운영체가 중앙 집권적이며 장로 집사 등 직분자가 없다. 교회 수는 국내 1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교직자 및 교인 수는 만여 명 내외로 추정된다. 창교자 권신찬(1996년 사망)은 교인들에게 재 침례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되어 목사 면직을 받았다. 유병언(2014년 사망)은 권신찬의 외동딸과 결혼하였는데 사업 확장에 주력하며 막대한 사업자금을 교인들의 현금과 사채로 충당하기도 했다. 오대양 사건 이후 많은 이탈자가 생겨나

교세가 위축되기도 했으나 아직도 여러 교회와 기업들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이 일단 죄 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양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육신적인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므로 행위 주장은 잘못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람이 일단 구원을 받으면 기도는 필요 없다.’ 등 구원파의 관심과 교육 내용은 ‘구원과 종말’로 압축될 수 있다.

(2) 박옥수 계열

교회 수는 국내, 외 400여 개 가까이 있다. 박옥수는 1968년 덕옥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전하고 있다. 80년대 말 대전으로 본부교회를 옮겨 교단 명을 대한예수교침례회로 개칭하는 한편 기쁜소식선교회를 조직하여 실내체육관 등을 빌려 본격적인 세 과시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이단이나 한국교회보다 먼저 온라인으로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 본거지는 서울 서초동(기쁜소식강남교회)이다. 예전에 암 치료제 ‘또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죄사함과 거듭남’을 강조하며, 풍유적 성경해석을 남발하고 있다. 반복적 회개를 부인하고, 삶에서 나타나는 범죄는 일일이 고백하여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으며, 죄 자체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주장하며, 죄인이라고 말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성화가 배제된 중생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쁜소식 대구교회



박옥수씨가 창립한 그라시아 합창단

아울러 최근엔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작은 도서관을 포교의 연장선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이 실시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쁜소식선교회와의 깊은 유착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도서관은 종교적인 활동을 지양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도서관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작은 도서관 측 관계자 역시, “지자체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 작은 도서관마다 제지가 다를 수 있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념”이라며 “종교적인 활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쁜소식선교회 측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 뒤에 숨어 종교활동을 펼치는 점이 잘못이다. 정체를 숨기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기쁜소식선교회를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3) 이요한 계열

본거지는 경기도 안양 인덕원에 ‘서울중앙교회’란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다. 교회 등처소가 국내와 국외를 합쳐 1,000여 개 이상이나 되고, 교직자와 교인 수만도 무려 10만여 명 가까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요한은 중학교 졸업 후 권신찬에게서 잠시 사사 받은 것이 교육 배경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원과 초창기에 목포에서 권신찬과 합류하여 활동하다 1971년 권신찬에게 목사안수를 받았다. 1983년 교회 헌금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교회와 사업은 분리돼야 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복음수호파’로 분립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깨달음은 믿음과 구별된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데 부족하다.’,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거듭나는 것은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 년에 4번씩 사경회와 같은 강연회가 있다. ‘성경 강연회’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영화배우 류승룡 씨 등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안양 서울중앙교회

2) 대처

이렇듯 구원파는 성경의 해석과 인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구원파 등 이단에 대해 어릴 때부터 눈

높이에 맞게끔 교육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단의 정확한 이름과 간단한 교리만이라도 숙지할 수 있도록, 또한 이단 문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다고 해도 관심을 두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곳이라면 절대로 관계를 금해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교회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총 결론 |

이단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백신은 경계와 예방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외 깨어 근신하고, 늘 지피지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된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이단의 출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일에 우리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서야 되겠는가. 이단 대처의 핵심은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다. 말씀을 토대로 각 교단의 이단들에 관한 연구 결과물들, 또 이단 연구 단체들의 정보들을 통해 분명한 ‘지피지기’가 이뤄진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동안 부족한 이의 글을 읽어주시고, 아울러 기도로 함께해주신 귀한 대구제일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맘을 전하며 이만 글을 맺고자 한다.

- 끝 -

불렷동상

부제

1. 서론 :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1]
2. 본론 :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2]
3. BIG 3 이단 :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4. **BIG 3 이단 : 이단,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 그리고 결론**

이단을 이기는 기독교 교리[4]

종 말 론



장규현 목사

창조 그리고 종말

기독교를 성격 짓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기독교가 ‘역사적’이면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종말은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는 삶과 사회를 연속적으로 보지만, 종말은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시간관 속에는 순환적인 개념이 강하지만, 기독교의 시간관은 선적이며 역사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모세와 수많은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 구체적인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시간을 넘어 새로운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시간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시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종말론과 연관된 이단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주제 중에 종말론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은 개인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동시에 종말론의 주제들은 잘못 접근하면 사변적인 방향으로 흐르거나 성경을 떠난 공허한 논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종말론에 대해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조에서 시간은 시작되었고, 종말에서 시간은 완성됩니다. 최근에는 종말을 창조의 개념 안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원 창조→지속적인 창조→새 창조”라는 구조 속에서 거대 역사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원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속적인 창조 속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새 창조라는 구원이자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역사의식과 종말론적 신앙의 조화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종말의 때에 현재의 역사가 파국을 맞는다면,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현재의 역사와 다가오는 종말의 관계를 변증법적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종말은 현재 역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이 역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고 하

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종말의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며, 거듭난 세계라는 의미이지요. 성경은 이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역사와 종말의 비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현재의 역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종말로 인한 새로운 세계는 현재의 ‘역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종말은 ‘연결’되어 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에 대한 책임적 자세가 가져야 할 테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사의식과 종말론적 신앙의 조화에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을 때, 미래의 소망을 잃으면서 현재의 삶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반대로 종말만 강조하면 현재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역사에 대한 책임성도 상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과 동시에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현재에만 몰두하던지 종말만을 강조하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439 십자가로 가까이

F. J. Crosby 작사, W. H. Doane 작곡: 〈통일찬송가, 1983〉 496장

복음성가 혹은 CCM(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한 현대 기독교음악)이 기독교 집회의 주류 음악이 된 시대이지만 60대 이상의 노년 세대는 전통 찬송가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있다. 보수적인 취향의 노인네들 편견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전통 찬송가의 음악적 기품과 가사의 깊이를 계속 누리고 싶은 소망을 CCM으로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여기에 소개되는 ‘십자가로 가까이(439장)’ 찬송은 나의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 부흥 집회나 기도 모임에서 단골로 부르던 찬송가 중 하나였다. 산란하고 번잡하던 마음도 이 찬송을 접하면 어느덧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옥토 밭으로 다듬어지곤 하였다. 아쉽게도 최근 수년 동안 나는 이 은혜로운 찬송을 집회 회중 찬송으로 불러본 기억이 없다. 찬양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갈망을 헤아려서 CCM 찬양과 전통 찬송가의 은혜를 집회 때마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 양홍철 장로 (홍보출판부 부장)

이 찬송은 브래드버리 돈서원 알렌 등이 공동 편집한 찬송가 《빛나는 보석》'Bright Jewels, 1860 130장에 처음으로 실렸다. 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소개된 것은 (찬양가, 1894) 67장이다. 그러나 오늘의 가사로 불리게 된 것은 <찬송가 1908 159 장부터이다. 이 곡조와 같은 곡조인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양악계의 선구자 김인식(金仁湜 1885~1962) 새문안교회 집사가 1905년(광무년)에 우리말로 작사한 최초의 찬송이다.

439 십자가로 가까이 (통 496)

F. J. Crosby, 1869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교정 1:18) NEAR THE CROSS: 7.6.7.6. REF.
W. H. Doane, 1869

조금 느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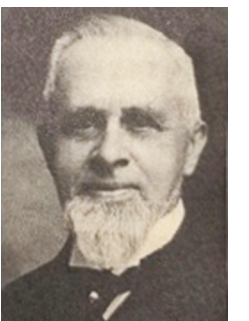
1.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2. 십자가에 가까이 내게 떨고서
3. 십자가로 가까이 나의 지고서
4. 십자가에 가까이 나의 지고서

거기 홀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거기 몸소 받은 은은고 생도 내게 하옵소서
천국이 있을 때 까지 알상며 물 내
후렴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 안식 얻네 아멘

반석다문화선교센터 <http://blog.naver.com/bansuk0153> 주와 동행

그는 같은 해 평양 서문 밖 소학교에서 연합운동회가 열릴 때 「학도가(學徒歌)」를 작사·작곡하여 부르게 했는데, 이 것은 한국사람이 지은 최초의 서양음악 곡조다.

이 찬송은 하워드 돈(W. Howard Doane, 1832~1915)이 편집 출판한 《헌신의 노래들》'Songs of Devotion. 1870 232장에 처음으로 실렸다. | [출판물상](#)



〈이상 출처: 오소운 목사.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성서원〉

신천지의 종말에 대한 주장을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 종말을 맞이함으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고, 유대교가 종말을 맞이한 후 기독교가 시작되었듯이, 지금 기독교가 종말을 맞이하고 신천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신천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 땅에 창조된 천국을 '신천지'라고 부르며, 그 장소를 경기도 과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만을 강조하며, 종말의 완성을 이곳에서 모두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종말 이해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반대로 종말만을 강조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종말을 현재와의 완전한 단절로 이해함으로 현재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인 역사인식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하여 역사의 완성이라는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태초에서 종말 사이의 현재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연속이 역사이고, 역사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된다는 생각이 '구속사적인 역사인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의 방향성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고, 언제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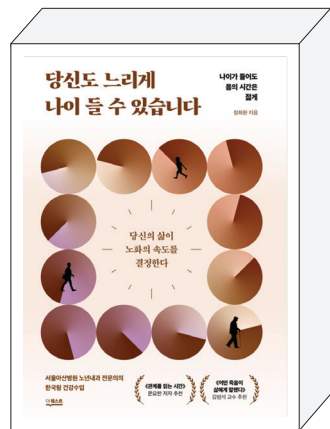
사 속에서 구체화합니다. 기독교는 삶의 목적과 역사의 완성을 생각하며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인식 위에서, 종말론적인 지평 위에서,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는 현실의 삶과 미래의 약속이 바르게 조화되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활력이 생깁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소명을 인식하며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구제일교회는 대구의 모 교회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구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에 걸친 이단을 이기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지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론, 구원론, 종말론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신앙의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출판물상](#)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화를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네 가지 기동과 습관들”



- ▶ 도서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 ▶ 저 자: 정희원
- ▶ 역 자: 홍화옥 · 김영희
- ▶ 출판사: 더퀘스트
- ▶ 출간일: 2023년 2월 16일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했다. 의과대학 시절, 호른을 연습하던 중 근력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근감소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였다.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처방받아 먹고 있던 약 중 특정 약을 빼자 며칠 만에 멀쩡해지는 모습을 봤다. 이것을 계기로 노인의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으며, 내과 전공의 시절에 노쇠에 대해 연구하다가 공부에 대한 갈증이 생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 대학원에 들어가 의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다.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한국 사회에 가속노화가 도래했음을 경고하고 노화의 속도를 정상화해줄 네 가지 기동과 그에 따른 습관들을 담아 책으로 펴냈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신체질량지수나 음주를 비롯한 젊은 성인의 건강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 실제로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30대 여성, 치매가 생긴 것 같다는 40대 남성, 원인 모를 쇠약감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50대 남성 등 진료실을 찾는 젊은 환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노인 의학자들은 우리가 77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노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60대에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은퇴가 힘든 것이다. 정희원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본인의 진료 경험뿐 아니라 임상 연구, 과학, 인문학, 경제학 등을 넘나들며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기 위한 4M 건강법(뒷면 그림 참조)을 구축했다. 신체기능을 되돌려주는 ‘이동성’, 인지기능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마음 건강’, 건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 주는 ‘건강과 질병’,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나에게 중요한 것’ 등 건강하고 성공적인 나이 듦을 결정하는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축으로 한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건강법은 아니며, 그 개선 속도는 며칠 내로 나타날 정도로 빠르고, 얻을 수 있는 수명 연장의 폭이 최소한 12년 이상일 정도로 효과는 극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및 복지제도를 살펴봤을 때 건강은 최고의 재테크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 가장 이른 때다.

책 속의 PICK

☆ 내재 역량의 주요 영역은 이동 능력(locomotion), 인지(cognition), 정신적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 활력(vitality), 감

각기-시청각(sensory-visual and hearing), 사회적-물리적 환경(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등이다. 이 도메인들은 상호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무너지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이 연이어 무너진다. 저자는 노년내과 진료를 할수록 세상에는 한두 가지 법칙에 따라 끼워 맞춰지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2, 3차로 연결되어 있어 증상의 원인과 해결이 직접적인 1대1 관계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꼬인 줄을 푸는 심정으로 환자의 증상뿐 아니라 삶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83쪽).

☆ 이 내재 역량은 꾸준히 조금씩 쌓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안락함을 쫓아 더 많은 패락(단것 먹기, 게임하기, 유튜브 보기 등)만을 추구한다면 내재 역량은 점점 감퇴한다. 내재 역량이 낮을 때 정신적, 육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닥치면 쉽게 질병에 걸려 쓰러진다. 갑자기 내재 역량을 단련한다는 목적으로 갑자기 육체적 운동(달리기, 스쿼트 등)을 과도하게 한다면 당연히 부상을 입거나 병을 얻게 된다. 서서히 구축한 내재 역량을 잘 유지하다 보면 생물학적 노화가 더디어지고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79쪽).

☆ 현대의학은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드러나는 증상에만 주목하고 한 가지 도메인 이상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육체적 문제를 정신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판단해 치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과는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 증상이 없으면 신경성으로 분류하여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제한된 도메인 안에서 제한적인 증상치료를 하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은 계속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아플 뿐이다. 즉 다니는 병원과 복용하는 약, 건강기능식품의 개수만 한없이 늘어가는 것이다(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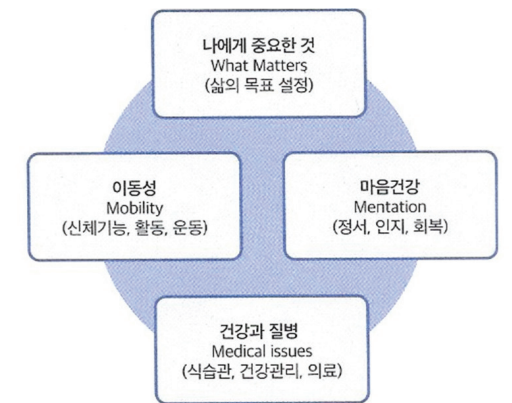


그림) 내재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챙겨야 할 4M

사례

여성 C는 늘 예민한 상태로 긴장하고 있으며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픈 느낌이 들었고, 식욕은 항상 떨어져 있었으며, 특히 고기를 잘 소화시키지 못했다. 운동은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기력이 업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건망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아 ‘뇌 영양제’까지 처방받았다. 뇌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서 식욕은 더 떨어지고 신경이 곤두선다고 했다.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처방받아 먹으면서 변비도 극심해졌다. 기본적인 혈액검사나 뇌 사진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런 경우 겉으로 드러난 증상인 인지기능 저하나 소화장애를 치료하는 것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우울감과 예민도를 높였으며, 그로 인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 음식 섭취를 제대로 못해 근육량과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면담을 통해 긴장과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착화하는 생활 습관을 찾아 고쳐나갔다. 먼저 우울감을 없애는 약을 처방하였고, 이어 식사와 운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체중도 회복되면서 인지기능도 개선되었다(76~77쪽). 불렛동상

註. 위의 내용은 출판사의 서평과 책 본문의 일부를 최무진 장로(홍보출판부 편집위원)가 편집한 것입니다.

이 가을에,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



김홍석 은퇴집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검소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친구 간에 사랑, 이웃 간에 사랑. 사랑이 없는 곳에는 웃음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입니다.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은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로 믿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마음 안엔 날마다 행복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부족한 것만 보게 함으로 결핍에 집중하게 하는 영혼의 독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방식은 늘 부족

의 심리로 우리를 몰아잡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풍요와 만족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아래서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어느 쪽이 더 기쁠까요?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행 20:35)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행복의 기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더불어 함께 나누고 베푸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에덴동산에서 아담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어 배필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와이가 내 개인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좋은 집들과 자동차들, 무수한 과일나무들, 아름다운 바다와 기막힌 풍경들... 그런데 평생을 그곳에서 나 혼자 산다면 그래도 행복하겠습니까? 나 혼자 산다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배부르다고 행복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편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고, 주고받는 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주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는 행복을 모르고 살까요? 창조 이래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평생을 나누고 베풀며 주는 삶을 사시다 마지막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행복해하시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비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주고받으며 사는 삶인데 "주는 자와 받는 자" 어느 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주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큰 복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 때, 받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마음에 나도 함께 기뻐하며 거기에 서로의 마음의 교감이 있고 또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삶의 기본 철학입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반드시 행복한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불렛증상

이스라엘의 역사(歷史)



김태호 은퇴안수집사

서양사는 기독교 역사이며 기독교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BC586년 남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라크) 왕국에 멸망 당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1948년 UN의 승인 하에 벵구리온에 의해 건국될 때까지 2534년간 어떤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짧은 지면에 다 소개하기는 불가능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합니다.

BC2166	1991	1876	1446	1390	1050	1010	586	539	
우르 하란	가나안	이집트 이주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울	다윗왕조	바벨론	바사	
BC330	63	AD395	638	1516	1920	1947	1948	2023	
바사	알렉산더 마카비 헤롯	로마	동로마	이슬람 십자군	오스만	영국	UN	이스라엘 건국	5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역사 연대 요약>

우르, 하란, 가나안, 이집트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출생(BC2166)으로 시작해서 그가 45세까지 우르(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점, 바벨탑이 있던 곳, 노아 방주 제작 추정 지역)에서 살다 가족이 하란(터키 중남부 시리아 접경지대)으로 이주해서 살았고 다시 팔레스타인 지방(이스라엘)으로 이주했다. BC1876년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였다한다.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다 BC1446년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40년 후에 가나안 땅(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다. BC1390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BC1050년에 왕이 될 때까지 340년 동안 사사(士師) 시대라 하여 여러 명의 사사가 통치하였으나 국가의 형태는 아니고 주로 외침에 맞서 싸우는 역할이었

다. 전쟁 상황이 끝나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바벨론, 바사, 알렉산더 시대

다윗이 BC1010년 왕이 되어 다윗 왕조가 BC586년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424년 지속되었다. 바벨론은 BC539년 바사(페르시아, 이란)에 망하고 바사의 고레스(키루스 대왕) 칙령으로(BC538년) 포로생활 70년 만에 귀환했으나 바사의 총독이 가나안을 지배한 바사의 속국이였다. 바사가 알렉산더 제국에 멸망한 BC330년까지 이스라엘은 208년간 바사의 지배를 받았다. 알렉산더는 20세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어 12년만에 대제국을 이루었으나 32세에 죽고 부하들에 의해 제국이 분할 통치되었는데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우스가, 그리스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노스가,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는 셀레우코스가 왕조를 이루었다. 이스라엘은 BC198년까지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우스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에는 셀레우코스 왕조에 속했다.

로마의 지배

이후 이스라엘의 제사장 맛다디아(하스몬 가문)가 제사 문제와 성전 모독 문제로 반란을 일으켜(BC167년) 하스몬(마카비)왕조를 이루어 BC63년까지 약 100년간 지속되었으나 시리아(셀레우코스)에서 완전한 독립은 없었다. 그 후 BC63년 시리아가 로마에 멸망 당할 때까지 알렉산더 계열 왕국에 267년간 지배를 받았다.

BC63년부터 AD395년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동서 로마로 분리되면서 동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AD638년 이슬람 제국의 지배 때까지 701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AD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공인,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기독교 국교 선언이 있었고 성지 보호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안정을 누렸다. 종교적 특수성으로 마카비 왕조(BC167 ~ BC63)와, 헤롯 왕조(BC37 ~ AD70)가 통치한 적도 있었으나 속국이었고 총독이 파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고종과 순종 때 일본 총독이 실제 지배한 것과 비슷하다.

이슬람 및 오스만의 지배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AD632년에 죽고 그의 후계자(칼리프)가 이슬람 제국(사라센 제국)을 세워 세력을 확장하여 동로마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AD638년에 점령하게 되면서 그 지역은 1516년 사라센 제국이 오스만터키(튀르키예)에 멸망 당할 때까지 878년간 사라센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슬람 지배 중에 십자군 전쟁(1096~1291)으로 성지는 200년 동안 이슬람과 십자군(서방, 교황)이 번갈아 지배하였다. 1516년부터 1920년까지 404년간 오스만 제국(튀르키예)의 지배를 받던 중 1798~1799 나폴레옹의 지배를 잠시 받았고, 1840년까지 40년 동안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사라센제국 시대>



<오스만제국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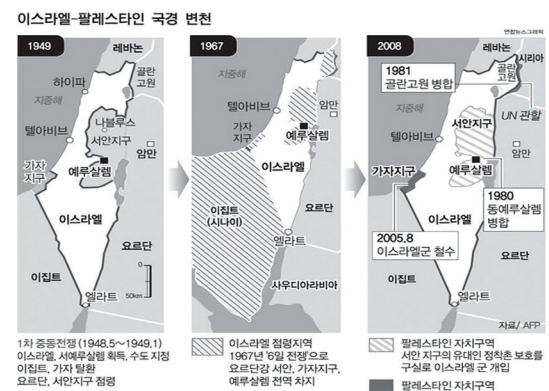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독립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의 유대인 대표들이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 건설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이 이스라엘 건국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때부터 유럽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세계 1차 대전(1914~1918) 중 연합국(영국, 프랑스)이 한때 전세가 불리해지자 영국 외상 벨포어가 유럽의 금융재벌이자 시오니즘 회장 로스차일드와 회동하고 전쟁 비용을 부담해 주면 그 대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 건설을 약속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참전도 이끌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벨포어 선언(1917)이다.

1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독일, 오스만제국, 헝가리, 불가리아) 중 오스만제국이 통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브르조약(연합국과 오스만제국의 조약)에 의해 1920년~1947년까지 영국이 위임통치하게 된다. 1947년 UN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를 분리 건국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벵구리온이 건국을 선포했으나 아랍 세계는 이에 반대하여 건국 후 2일 만에 아랍 국가와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승리하

면서 영토를 확장했다. 전쟁 협상으로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요르단 서안은 요르단이 통제하기로 했다. 그 후 2,3,4차 중동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5차 전쟁 중이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 했지만 2500년 이상 사라졌던 나라가, 특히 그 민족이 세계에 흩어졌고 2차 세계대전 중 민족 인구의 3분의 2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국토도 정부도 없던 민족이 다시 모여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너무 방대한 내용을 요약했기에 이해가 어렵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 **출판동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실상과 신앙적 이해



신성운
HOPE 이스라엘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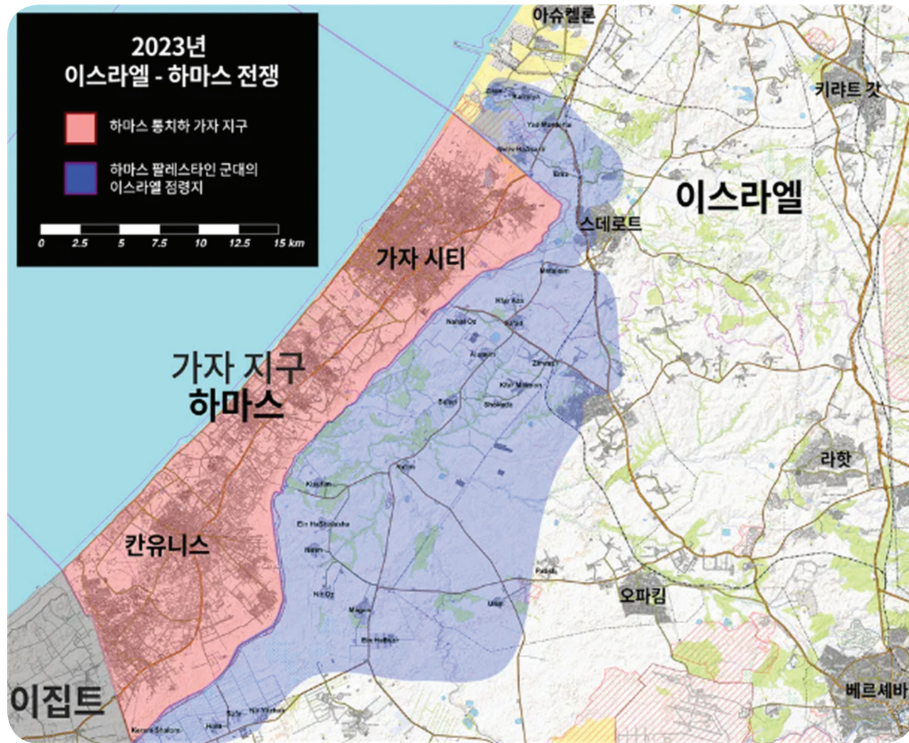
지난 10월 7일은 초막절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토요일이었다. 한해 중 가장 평화스러웠던 이날 아침에 2,500여 명의 하마스 무장대원이 가자지구를 둘러싼 장벽을 뚫고 일시에 이스라엘을 기습했다. 하루 동안에 가자지구 인근 22개의 키부츠와 마을과 소도시에 살고 있던 1,100명의 시민이 피살당하고 인근을 지키던 300명의 군인이 전멸당했다. 그리고 240명이 납치되어 가자지구 안으로 끌려갔다. 1948년 건국 이후 여러 차례 민족의 생존을 다투는 전쟁을 겪었지만, 이런 규모의 테러 공격은 그 전례가 없었다. 주거지역으로 침투한 하마스 분자들을 소탕하는 데는 여러 날이 걸렸다. 대학살의 참상은 그 후에야 드러났다. 아이들이 참수당했고 가족들이 불태워졌다. 이스라엘은 전시 동원령을 발동했고 36만 명의 예비군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신속히 돌아왔다.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군은 가자안으로 진격했고 처참한 양상의 응징은 이제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2012년, 2014년 그리고 2022년에도 무력 충돌이 있었다. 이번에 하마스를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하마스의 공격은 미래에도 필연적이다. 하마스는 그 헌법에서 이

스라엘을 불법 국가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온 영토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다.

이것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다. 이 분쟁의 가까운 정치적 외교적 배경은 7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의 영토를 두고 두 민족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영토를 나누어 각각의 국가를 세우도록 결정했다. 1947년 11월 유엔의 결정이었다. 유대인들은 이 결정을 수용했고 아랍인들은 거부했다. 유대인들에게 분할된 영토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자 아랍인들은 전쟁을 일으켰다. 당시 60만의 유대인들을 지중해로 내몰고 전체 영토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공격은 몇 차례의 중동전쟁으로 반복되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팔레스타인 측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고 본래 국제사회가 정해 주었던 그 영토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양측의 협상은 결실을 보는 듯했지만 실패했다. 하마스와 남부 레바논의 히즈볼라와 배후에서 이들은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이다.

<청색 지역이 하마스가 기습했던 이스라엘 영토>



우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일정 부분 유대인과 아랍인 두 민족 간의 갈등이 맞다.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토 분쟁도 맞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을 뺏으려는 이방 민족의 시도는 그 역사가 깊다(예로 시 83편, 오바댜를 보라). 이슬람교와 유대교 간의 종교적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마스는 알라신이 가장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 후 아크바르”를 외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할렐루야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의 기도’로 자신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세상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유

대인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말씀의 역사성이 사라진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기록된 말씀의 역사적 증인이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거나 못하신 것이 된다: “나 여호와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렘 31:35-36).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 불렝동상

교통사고를 줄이는 7가지 예방 수칙



빈태유 은퇴안수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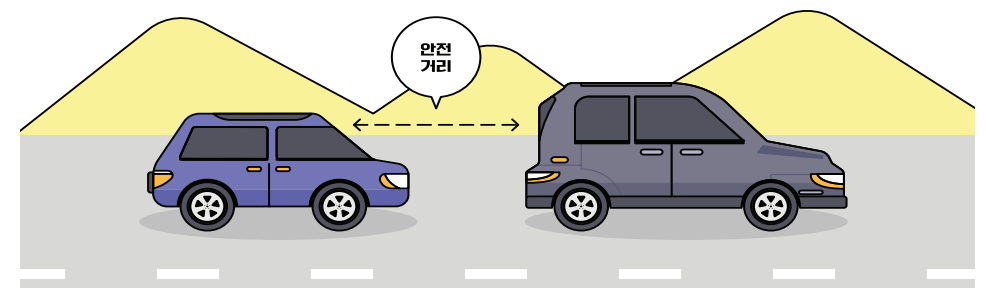
존경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사고 원인을 국가에서 조사한 결과 74%가 운전 시 전방주시를 잘못하여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카드를 적어 보았습니다.

<교통안전공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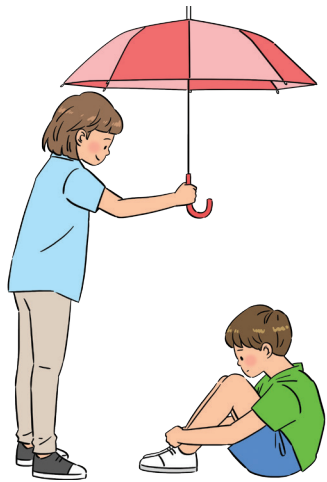
1. 차량 운전 시 전방도로 교통흐름을 주시한다.
2. 앞차와 따라붙지 않고 거리를 둔다.
3. 백미러로 뒤차의 흐름을 주시한다.
4. 좌우회전 시 500m 전에 그 차선에 진입한다.
5. 음주와 졸음이 올 때 절대로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6. 지정된 속도 외 과속을 하지 않는다.
7.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사고 운전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 합니다. | 불렝동상



정신장애 및 이상심리[2]

ADHD, 치매 / 심리평가 소개



우리 곁의 "심리학" 3회를 거쳐 정신장애와 심리치료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재되는 글들을 통해 건강과 인간관계, 또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삶과 신앙의 균형까지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정신장애 및 이상심리 1부 :

우울장애, 불안장애

2. 정신장애 및 이상심리 2부 :

ADHD, 치매 / 심리평가 소개

3. 심리치료의 최신 흐름



양선미집사¹⁾

지난 1부에서는 정신장애의 개념과 기분과 관련된 장애를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아마도 이상심리와 관련된 정서·행동상의 문제와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에서, 좀 더 인간 특유의 적응 능력과 정신건강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슬프고 불안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부정적 평가를 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기의 감정과 행동, 생각을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추어서 필요한 일을 해 나가며, 자기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로소 즐거움과 행복감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좋은 표시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가치와 확신감,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하겠으며, 이것이 바로 정상과 비정상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

란스럽고 역기능적인 현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진면목과 지혜가 아닐까 한다.

이번 2부에서도 독자들은 정신병리와 문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증상들로 인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적인 측면에는 무엇이 있을지, 스스로 사고를 확장하고 관점을 넓혀보길 바란다. 2부에서 소개되는 신경(발달/인지) 결함과 실행기능에 손상을 포함하는 ADHD와 치매는 부모 자녀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와 같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ADHD는 주의산만·과잉행동·충동성을 위주로 하며 아동 초기에 발병하고(7세 이전), 만성 경과를 밟으며, 여러 기능 영역(가정·학교·사회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ADHD 아동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흔히 아주 어려서부터 까다롭거나 과도하게 활발했던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밤낮이 바뀌어 애를 먹었다거나 혹은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며 수없이 넘어지고 다쳐서 애를 먹었다고 하는 등이다. 하지만 대개는 '철이 없다. 씹씹하다. 극성맞다. 남자답다' 등의 말을 들으면서 무심코 지내게 된다. 그러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단체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그 증상을 발견하고 주목하게 된다.

수업 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고, 질서나 규칙을 지켜야 하고, 비교적 긴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곤란을 겪는다.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대개 이 시기이며, 부모보다는 교사가 먼저 상담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수십 명과 함께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증상이 훨씬 심해지고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이다.

ADHD는 과잉행동, 주의 집중력 저하, 주의 산만, 충동성, 반항, 학습 문제, 운동실조의 증상을 보이고, 특히 과잉행동 혹은 주의산만은 핵심 증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① 과잉행동

과잉행동은 안절부절못함·꼬무락거림·불필요한 몸 움직임 등이 흔하다. 부모는 흔히 이 증상을 가진 아동이 '항상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다', '지나치게 기어오른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과잉행동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대근육에서 소근육 운동으로, 외적 행동에서 내적 행동으로 변화한다.

② 주의산만

부모는 흔히 이 증상을 가진 아동에 대해 '귀 기울여 듣지를 않는다', '끝맺음을 제대

1) 심리치료학 박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물댄동산 편집위원

로 하지 못한다', '쉽게 산만해진다',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다',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집중하지 않는다', '자꾸 지시해야만 한다', '일을 끝내지도 않고 딴 일을 벌인다'고 표현한다. 이 같은 주의산만함은 학령전기에 주의집중이 덜 요구되기 때문에 과잉행동이나 요구가 많은 것으로 간과되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두드러진다. 이것은 특히 학업 부진과 이차적인 동기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③ 충동성

과잉행동은 주의산만과는 구별되지만, 충동성과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 임상적으로 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개 부주의한 실수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자주 불필요한 위험 행동을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ADHD 아동은 잘 다치거나, 물건을 잘 망가뜨리거나, 게임에서 차례를 기다리거나 하는 데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ADHD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 생애 초기 경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환경요인이 논의되고 있지만,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다. 오히려 뇌의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ADHD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하거나 주변(가정, 학교, 사회)과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약물치료 없이 환경수정이나 부모상담, 행동수정 등을 우선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대개 임상에서는 문제가 비교적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우선적인 경우가 많다.

2. 치매

(신경인지장애, Neurocognitive disorders, NCD)

신경인지장애는 뇌 손상과 관련된 장애로, 뇌 손상이 일어나면 그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자신의 기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심한 손상이 일어나서 현실적인 자기 평가 능력이 없어지



면 그런 손상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나 재활 의지가 없다. 뇌 손상의 위치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정신장애가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뇌 손상이 일어나면 관련 인지 기능의 손상은 다음과 같다.

- 기억 기능의 손상 · 지남력 손상 · 전두엽 기능의 손상 · 통제 능력의 손상
- 수용 및 표현 언어의 손상 · 시공간 기능의 손상 · 정서 조절의 손상
- 학습, 이해, 판단 능력의 손상 · 정서적 둔마, 무감동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건망증은 '생리적인 뇌의 현상', '경험의 일부 중 사소하고 비교적 덜 중요한 일을 잊음',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이지만, 치매는 '뇌의 질환', '경험한 사건 전체나 중요한 일도 잊음', '힌트를 주거나 나중에 생각해도 거의 기억하지 못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간호를 필요로 함'이다.

이러한 치매는 노인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50대만 해도 젊은 환자 층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50대 이하의 젊은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보다 젊은 환자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젊은 치매 환자가 느는 이유는 혈관질환, 스트레스, 우울증과 유전 때문으로 추정되고, 20-30대 치매는 유전적 요

인이 강하다. 치매 완치법은 아직 없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 등을 위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시행 중이다.

3. 심리평가

심리평가는 한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이다. 심리평가 과정은 심리검사, 면담, 행동 관찰로 구성되며, 정신병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심리평가의 기본 기법인 심리검사는 심리적 문제나 현상의 개인차를 비교하고, 수검자의 전체적, 인격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측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투사법 검사로 나뉘고, 지적 기능 수준, 인지 능력(주의집중력, 기억력, 실행 기능 등), 성격 구조와 특성, 자아 능력, 정서적-사회적 측면 등을 평가하여 심리적 증상과 문제의 정도 및 심각도를 파악한다. 심리검사는 정서, 인지, 사고, 행동 습관, 생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종합심리검사, Full Battery Assessments), 필요와 목적에 따라 검사 항목별로 시행할 수도 있다. 종합 심리검사의 경우 1:1 면담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 심리검사 종류

지능검사(웍슬러형 지능 검사)	지적 장애의 진단 목적, 학습 및 진로 지도,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의 능력과 성취도 등을 측정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MMPI)	정신장애 및 정신병리 진단 평가, 개인의 성격 특성, 적응 수준 등을 측정
투사법 그림 검사(HTP, KFD 등)	내면의 욕구, 감정, 생각, 자신의 환경과 경험에 대한 이해, 가족 구성원 간의 역동,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정 등을 측정
로르샤하 검사(Rorschach)	경험을 조직화하는 방식(인지적 조작 능력), 그 경험에 부여하는 개인적 의미 분석, 성격 구조 평가, 정동, 개인적/대인 관계적 지각 등을 측정
주제 통각 검사(TAT, CAT)	의식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욕구, 정서, 기분, 콤플렉스, 성격 갈등, 수검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기본 구조뿐만 아니라 수검자의 생활 상황 중 '지금-여기'를 잘 포착할 수 있음
문장 완성 검사(SCT)	성격의 정신역동을 분석, 성격, 태도, 행동을 의식적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음
신경심리평가	두뇌 외상이나 뇌 기능 장애를 진단,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처리 능력, 기억력, 실행기능/전두엽 기능, 치매 평가, 정서 및 행동장애 평가로 구성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 심리평가	발달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자폐증 진단 평정 척도, 행동평가척도, 부모 양육 태도 검사, 인성 평정척도 등이 있음
기질 및 성격검사(TCI)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친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구분하여 인성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함

2부에서도 쉽지 않은 정보가 많았지만, 단순히 정신장애나 심리평가를 통해 나 자신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어떤 학문과 지식·기술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는 감동이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물댄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낮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밤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 (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아담스홀
구역 장 회	(화) 오전 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3층)
초 등 1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6층)
초 등 2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7층)
초 등 3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4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 년 1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2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3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 (4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가족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91.9)
예배상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05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5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0

접수 마감

2024년 2월 24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E-mail : fch_pub@naver.com

네이버 메일로 원고 접수
또는 홍보출판부 (본당 4층), 행정실
카톡접수: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